|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즌2 제1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2 제1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8	①	2	35	③	2	35	⑤	2
2	①	3	19	⑤	2	36	①	3	36	③	3
3	⑤	2	20	④	2	37	②	2	37	②	2
4	①	2	21	⑤	3	38	③	2	38	③	2
5	③	2	22	④	2	39	②	2	39	②	2
6	③	2	23	②	2	40	②	2	40	④	2
7	④	2	24	⑤	2	41	④	2	41	①	2
8	⑤	3	25	③	2	42	②	2	42	④	2
9	④	2	26	④	3	43	①	2	43	②	3
10	⑤	2	27	③	2	44	④	2	44	③	2
11	③	2	28	⑤	2	45	③	3	45	④	2
12	①	2	29	②	2						
13	④	3	30	④	3						
14	①	2	31	②	2						
15	②	2	32	①	2						
16	③	3	33	①	2						
17	②	2	34	③	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2 제1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읽기 모형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 제시된 세 가지 읽기 모형은 모두 읽기 과정에서 생략된 내용에 대한 추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료 지향적 읽기 모형에서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면서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하향적 읽기 모형에서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야 한다. 또한 교섭 과정 모형에서는 글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찾아내어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생략된 내용에 대한 추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부는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읽기 모형 중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자료 지향적 읽기 모형뿐이다. 따라서 이는 읽기 모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② 읽기 모형 중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독자의 역할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하향적 읽기 모형뿐이다. 따라서 이는 읽기 모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④ 읽기 모형 중 독자를 둘러싼 상황적 요인이 글의 의미 파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은 교섭 과정 모형뿐이다. 따라서 이는 읽기 모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⑤ 읽기 모형 중 단어의 의미 파악이 안 되면 문장의 의미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자료 지향적 읽기 모형뿐이다. 따라서 이는 읽기 모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독서 교육 초창기의 교육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문에 제시된 세 가지 읽기 모형의 관점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보기>의 '독서 교육' 방법에 따르면 글을 소리 내어 읽어 해독함으로써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료 지향적 읽기 모형에 따르면, 이처럼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읽기의 시작 단계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읽기가 듣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은 글이 저자의 음성 언어를 문자에 담아 놓은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이는 저자의 의도가 글에 담겨 있다는 자료 지향적 읽기 모형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③ 하향적 읽기 모형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에는 배경지식을 떠올려 의미 구성의 과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글의 의미는 해독에 따라 자연스레 이해되는 것이라는 인식은 배경지식을 적극 활용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향적 읽기 모형의 관점과 상충한다. ④ 글을 소리 내어 읽도록 권장할 뿐이었던 것은 이를 통해 글을 해독하면 글 전체의 의미가 이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향적 읽기 모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독자가 적극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읽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리 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은 하향적 읽기 모형이 아니라 교섭 과정 모형의 관점이다. ⑤ 독자의 마음의 작용과 무관하게 독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글의 의미는 저자가 의도한 것으로 독자는 이를 파악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교섭 과정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독자의 배경지식과 여러 상황적 요인이 읽기 과정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일 뿐, 저자의 의도가 읽기 과정에 개입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책의 종류나 읽기의 목적에 따라 최근의 읽기 모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읽기 모형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여러 읽기 모형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을 실제 읽기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특정한 읽기 모형을 자신의 읽기 활동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② 학생은 여러 가지 읽기 모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③ 학생은 기존의 읽기 모형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들이 오늘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④ 학생은 자신의 읽기 방식과 달리 다양한 읽기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읽기 방법과 다른 읽기 모형들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4 ~ 9] 사회 통합

4. [출제의도] 지문의 논지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수직 결합의 개념을 '생산의 수직 계열상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독점 시장에서 기업의 이익이 수직 결합을 통해 증가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그것을 수직 결합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는 소비자가 수직 결합에 비판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나)는 수직 결합에 대한 윌리엄슨의 견해만 소개하고 있을 뿐, 수직 결합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 따를 때 수직 결합은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수직 결합이 강탈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수직 결합과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둘째 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기업의 이익은 어떠한 시장 구조에서든, 즉 독점 시장이든 경쟁 시장이든 상관없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최대가 된다.

[오답풀이] ① (가)의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② 관계 특화 자산에 투자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 즉 높은 자산 특이성은 거래 상대를 바꾸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④ (나)의 마지막 문단에 설명되어 있듯이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예견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공동 투자를 요구하거나 세밀한 내용의 장기 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나)의 셋째 문단의 예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갑이 을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정비소에 와이퍼를 판매하게 된다면 판매 가격은 을에 납품하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이다.

6.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부분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P_Y는 MC_X와 k를 더한 값에 결합 이전의 두 기업의 이윤의 합을 더한 값이고 P_1은 MC_X와 k를 더한 값에 수직 결합된 기업의 이윤을 더한 값이다. 그런데 P_1은 P_Y보다 낮으므로 수직 결합된 기업의 생산량 Q_1에서의 이윤은 결합 이전에 Q_Y에서의 X와 Y의 이윤의 합보다 작다.

[오답풀이] ① 수직 결합 이전의 X의 이윤은 수직 결합 이후에는 아예 빠지게 되므로 MC_1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X의 부품 가격을 제외한 평균 생산 비용 k는 수직 결합 이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동일하다. ④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지문의 설명과 반대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Q_Y와 Q_1 사이의 변화율이 P_Y와 P_1 사이의 변화율보다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⑤ 수직 결합 이전에 X는 자신의 이윤을 붙인 가격 P_X에 Q_Y만큼의 수량을 생산하여 Y에 납품하는데, (가)의 둘째 문단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이 지점에서 X의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므로 X의 이익도 최대화될 것이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개념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두 개의 독점 기업이 수직 결합을 할 경우 수직 결합 이전에 두 기업의 이익의 합보다 수직 결합된 기업의 이익이 더 크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반면에 (나)는 자산 특이성이 높은 거래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결과 강탈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런데 자산 특이성이 높은 거래 관계는 상호 독점 관계가 되므로,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강탈 역시 독점적 거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①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제품 판매 수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제품의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판매량이 많을수록 커질 것이다. ② 강탈은 자산 특이성으로 인해 쉽게 거래 상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③ (가)에 따를 때 기업의 이익은 수직 결합을 통해서 증가하고 (나)에 따를 때 수직 결합이 이루어지면 강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⑤ (가)에 따를 때 기업의 이익이 수직 결합을 위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나)에 따를 때 수직 결합은 강탈을 피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강탈 역시 수직 결합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에 체인을 납품하기 위해 ㉯가 특수한 공작 기계에 선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와 ㉯의 관계는 (나)에 제시된 갑과 을의 관계와 유사하다. 반면 ㉮와 ㉯가 모두 독점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가)에 제시된 X와 Y의 관계와 유사하다. 한편 ㉰가 생산하는 베어링은 일반적인 용도의 부품이고 이 시장은 경쟁 시장이므로 ㉰와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의 관계는 상호 독점 관계라 볼 수 없다.

[정답풀이] ㉮와 ㉯는 모두 독점 기업이고 수직 계열상에 있기 때문에 슈펭글러는 양자가 수직 결합을 하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볼 것이다. 한편 ㉮에 특수 체인을 납품하기 위해서 ㉯는 관계 특화 자산인 특수한 공작 기계에 선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윌리엄슨은 ㉮의 강탈을 피하기 위한 ㉯의 시도의 결과로 수직 결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반면 슈펭글러는 ㉰가 독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윌리엄슨은 ㉰가 관계 특화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와 ㉰ 사이에 수직 결합의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오답풀이] ① 슈펭글러에 따를 때 ㉮와 ㉯가 수직 결합을 하면 자전거의 판매 가격은 낮아지고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체인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납품하는 ㉰의 매출 역시 증가할 것이다. ② 슈펭글러는 두 독점 기업이 수직 결합을 하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양자가 납품 계약을 맺으면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이유도 없다. ③ 윌리엄슨은 ㉯가 특수한 공작 기계에 선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가 아니라 ㉮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볼 것이다. ㉯가 관계 특화 자산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상호 독점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가 아니라 ㉮이기 때문이다. ④ 윌리엄슨은 ㉮의 강탈을 예견한 ㉯가 ㉮에 특수 공작 기계에 투자를 요구할 경우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고 볼 것이다.

9.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체결(締結)하다'는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다.'의 의미이므로, ㉣의 '맺어'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 13] 과학

10.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PKA는 cAMP가 ATP에서 분리해 낸 인산기와 결합함으로써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cAMP와 직접 결합함으로써 활성화된다.

[오답풀이] ① 음식 섭취 등을 통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그 일부가 글리코젠으로 전환되어 간세포에 저장된다. 이를 통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② 단백질은 인산기와 결합하는 인산화 반응을 통해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된다. 따라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의 변화에 따라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전환되기도 한다. ③ 간뇌 시상 하부의 작용에 의해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은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을 촉발하고, 그 결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생성되어 세포들에 전달된다. ④ 에피네프린과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된 에피네프린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을 유도한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반응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의 과정에서 글리코젠 합성 효소는 인산화 반응을 통해 비활성화된다. 이 글리코젠 합성 효소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효소이다.

[오답풀이] ①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의 과정에서 PKA와 인산화 효소 키네이스 한 분자는 각각 많은 수의 표적 단백질을 인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를 거치면서 인산화되는 단백질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②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은 간세포의 세포막에서 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촉발된다. ④ 갑작스러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간세포에서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을 통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생성하여 각 세포에 공급한다. ⑤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에 의해 간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다량의 글리코젠이 한꺼번에 신속하게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12.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대상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단백질 키네이스 중 PKA는 글리코젠 합성 효소를 인산화함으로써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전환시킨다.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는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을 통해 활성화되었던 단백질 키네이스들을 탈인산화함으로써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을 중단시킨다. 따라서 활성화되었던 단백질 키네이스들이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에 의해 비활성 상태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단백질 키네이스는 ATP로부터 인산기 하나를 분리하여 표적 단백질을 인산화하는 작용을 할 뿐, 간세포 내부에 ATP를 생성하지는 않는다.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역시 단백질 키네이스를 탈인산화하는 작용을 할 뿐 ATP를 생성하지는 않는다. ③ 단백질 키네이스는 표적 물질을 인산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물질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한다. 표적 물질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산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세포 내에 존재하는 화학 에너지원인 ATP에서 인산기 하나를 분리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가 아니라 단백질 키네이스이다. ⑤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는 부신에서 간세포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산화되었던 단백질 키네이스들을 탈인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의 낭비를 막는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두 약물 X와 Y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X는 인산화 효소 키네이스를, Y는 글리코젠 합성 효소를 표적 단백질로 가지며, 이들을 탈인산화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이 인산화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지문의 정보로부터 이들이 탈인산화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X는 인산화 효소 키네이스를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전환하지만, Y는 글리코젠 합성 효소를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한다. 이러한 Y의 작용에 의해 단백질 키네이스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글리코젠 합성 효소에 의해 포도당 일부가 글리코젠으로 전환됨으로써 혈중 포도당 농도 상승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X는 활성 상태의 인산화 효소 키네이스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한다. 그런데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 인산화 효소 키네이스는 다른 단백질을 탈인산화할 수 없다. ② Y는 표적 단백질인 글리코젠 합성 효소를 활성화하여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Y에 의해 표적 단백질이 단백질 키네이스로 작동하지 않도록 유도되는 것은 아니다. ③ X와 Y는 모두 PK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X에 의해 인산화 효소 키네이스는 탈인산화되어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글리코젠 인산화 효소의 활성화가 유도되는 것은 아니다. 글리코젠 인산화 효소의 활성화가 유도되기 위해서는 인산화 효소 키네이스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4 ~ 17] 예술

14.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화폭에 표현한 것은 시간의 단면인 순간이었으므로 연작을 통해 표현된 것 역시 '지속으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순간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세잔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대상들 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이룬 것이지, 대상의 견고한 구조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이룬 것은 아니다. ③ 세잔이 원근법의 기계적 적용을 피한 것은 맞지만 이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기 위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실재를 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④ 분석적 입체주의 화가들이 세잔의 작품에서 주목한 것은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관찰한 것을 한 작품에 통합한 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찰한 내용을 세잔적인 진행을 통해 한 작품에 통합한 점이다. ⑤ 분석적 입체주의 화가들이 입체주의 화풍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한 것은 야외에서 대상이나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분석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작품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분석적 입체주의 화가들은 처음에 세잔적인 진행을 수용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했다. 브라크의 작품 ㉡(「나무 뒤의 집」)은 브라크가 세잔적인 진행을 수용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체험한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이와 달리 ㉢(「여인 좌상」)은 피카소가 세잔적인 진행에서 벗어나 시점을 고정하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여 만든 작품이다.

[오답풀이] ① ㉠(「로브에서 본 생빅투아르 산」)과 ㉡ 모두 세잔적인 진행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으로, 대상의 한 면이 주위의 면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은 시점을 고정한 채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을 담아 화가가 체험한 시각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은 체험한 시각 경험이 아니라 사유와 분석의 결과 즉 대상의 본모습인 실재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④ ㉠은 화가가 직접 보고 체험한 풍경을 질적인 공간에 표현한 것인 반면, ㉢은 사유와 분석을 통해 대상을 파악한 후 균질적인 공간인 수학적 공간에 표현한 것이다. ⑤ ㉡은 시점을 고정한 채 지속적으로 관찰한 모습을 한 화폭에 담음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고, ㉢은 시간을 달리하며 여러 방향에서 파악한 대상의 단면들과 입방체들을 한 화폭에 모음으로써 실재를 표현하고 있다.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16. [출제의도] <보기>에 소개된 인물의 관점에서 지문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근대 철학자 베르그송의 이론이 소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시간적 존재이다. 그에게 실재, 참된 현실은 이처럼 시간적이다. 그는 특히 일상적 체험의 대상이자 그 산물인 질적이고 감각적인 시·공간과 과학적 사유의 대상이자 그 산물인 균질적이고 양적인 시·공간을 구분한다. 이러한 베르그송의 이론에 기초해서 인상주의 화가들, 말기의 세잔, 분석적 입체주의 화가인 브라크와 피카소의 작품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세잔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한 대상은 형태가 불명료하고 경계가 흐려 대상의 한 면이 인접한 면으로 흘러들어 가는 등 본래의 원근법에 비추어 볼 때 왜곡된 모습을 띨 것이다. 이처럼 세잔이 작품 속에 표현한 것은 화가의 시각과 촉각 등이 혼재된 상태의 것으로 베르그송에 따를 때 우리가 체험하는 질적이고 감각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각과 촉각 등이 혼재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인상주의 화가들이 화폭에 담은 순간적인 인상은 흐르는 시간의 단면인 순간일 뿐이다. 베르그송에 따를 때 이는 지각되는 현실을 임의로 절단한 가상이므로 참된 현실이 아니다. ② 세잔이 연한 푸른색과 녹색을 사용하여 듬성듬성한 붓질로 표현한 대기의 흔들림은 화가가 시점을 고정한 채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직접 체험한 것으로, 베르그송에 따를 때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화가의 의식을 표현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④ 브라크가 입체주의 화풍이 나타나기 전의 작품에서 세잔적인 진행을 수용하여 대상의 변화를 담기 위해 대상의 형태들이 주위로 흘러들도록 묘사한 것은,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대상이 시간적 존재임을 표현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⑤ 피카소는 세잔의 기법과 차별화하여 자리를 옮겨 가며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분해한 기하학적인 형태들과 입방체들은 현실과 유리된 느낌을 준다. 이는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인 공간, 개념화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17.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형태를 이루는 윤곽선들'의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이는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룬다.'의 '이루다'와 그 의미가 가장 가깝다.

[18 ~ 21] 현대시

→ 연계 지문 : 박재삼, 「수정가」 (수능특강 35쪽)

→ 서정주, 「다시 밝은 날에-춘향의 말 2」

18.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습니다'를, (나)는 '-을레'(1연), '-을까나'(2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는 공손한 경어 표현을 통해 고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을레(-ㄹ 것이다)', '-을까나' 등의 표현을 통해 추측의 어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단정적인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③ (가)에서는 '아지랑이'에서 봄을, '쏘내기비'에서 여름을 떠올릴 수 있기에 부분적으로나마 계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시적 분위기를 고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푸른 산 언덕들'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감(봄 혹은 여름)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에는 의문형 표현이 쓰이지 않았고, (나)에는 '보았을까나', '하였을까나' 등의 의문형 표현이 쓰이기는 했지만 이는 대상(춘향)에 대한 경외감(=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19. [출제의도]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E]에서 '또 한 번 내 위에 밝는 날'은 '내 마음의 빛갈'이 '당신의 사랑'이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오로지 '그'와의 사랑만을 추구하고 있기에,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볼 수 없다.

20. [출제의도] 시어의 이미지 활용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산과 언덕들'은 정적인 이미지를, '만 리 같은 물살'은 동적인 이미지를 환기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춘향의 감정은 그리움과 슬픔으로 일관된다. ㉤에서 감정의 전환이 드러난 것은 아니며, 춘향이 가진 감정도 원망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정화수'는 소원을 빌기 위해 떠놓는 물이라는 점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환기하고,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은 아침에 새로 차오르는 우물물이나 아침 이슬의 깨끗한 이미지를 환기한다. ㉠은 이 두 이미지의 연결을 통해 춘향의 정결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나)에서 서방님은 '바람', 춘향은 '물방울'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은 '바람(서방님)' 옆에 '스러지는 물방울(춘향)'의 '순순한' 이미지를 통해 춘향의 지고지순한 모습을 환기하고, 이를 밝고 빛나는 이미지의 '찬란한'과 결합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③ 서방님을 기다리며 '푸른 산 언덕들'을 바라보던 춘향은 (바람 혹은 눈물 때문에) 일렁이는 초목들의 모습에 '그리움'을 투영하며 눈물을 짓고 있다. ㉢은 이러한 춘향의 그리움과 슬픔을 '푸른 그리움'과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에 연결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수정')은 맑고 투명하면서도 단단한 보석이라는 점에서 물처럼 투명한 이미지와 광물의 단단한 이미지를 함께 환기함으로써 순결하고 굳건한 춘향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화자는 '춘향'이 아니라 춘향의 상황과 심정에 대해 추측하는 제3의 인물이다. 따라서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이라는 말도 춘향이 아닌 제3의 인물인 화자가 한 말이다. (춘향이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 놓고 기도하고 '푸른 산 언덕들'을 바라보며 서방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구절은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신령님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춘향은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서방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진 춘향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받들고 따라야 할 신령님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나)에서 화자는 춘향의 마음을 '집을 치면(집으로 빗대자면)' '우물집이었을레(우물집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제3의 인물인 화자가 추측의 방식으로 춘향의 마음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④ 몽룡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눈물짓는 춘향에 대해, 화자는 '하루에 몇 번쯤'이나 '푸른 산 언덕들'을 '보았을까나', '그때마다' 흐느낌은 '얼마쯤 하였을까나'라고 진술함으로써 춘향의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22 ~ 26] 현대소설 – 희곡 통합

→ 연계 지문 : 정한숙, 「고가」 (수능특강 278쪽)
| 차범석, 「불모지」 (수능특강 218쪽)

22.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3인칭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는데, [A]에서는 필재의 기억 속 집의 정경이며 어머니의 모습 같은 것들이 서술자의 시각적 묘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오답풀이] ② [A]는 과거 회상 장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문에서 사건이라 할 만한 것은 종친들과 필재의 의견 대립뿐인데, 과거 회상 장면이 의견 대립을 해소할 실마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야기 내부 인물이 이야기를 직접 진술할 경우에는 '나' 등의 1인칭 표현이 나타난다. 지문은 1인칭 표현 없이 3인칭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23. [출제의도] 지문의 사건과 관련하여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필재는 종친들이 종손인 자신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득세하려 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다. '밤새껏 앉아 그들의 소리를 들어 봤댔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필재에겐 무섭고 두려운 소리뿐이었다. 언제부터 정치에 눈이 밝아졌는지 그들은 서울 사람 뺨쳐 먹을 정도인 것만 같았다.'라는 서술을 통해 이러한 경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필재의 집에서 회의가 열린 것은 필재가 집을 팔러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종친들의 동요 때문이다. 필재가 종가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대한 내용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③ 종친들은 집을 재건하고 종가를 부흥시키라고 종손인 필재를 설득하고 있다. 필재를 도외시한 채 종가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며, 필재가 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지문에서 필재가 집을 팔려는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선거 출마는 종친들의 뜻이지 필재 본인의 뜻이 아니므로, 집을 파는 목적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종친들은 필재에게 '돈 쓰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24. [출제의도]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집을 팔자는 어머니의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최 노인을 향해, 어머니는 '나도 무엇이 좋아서 50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자고 하겠'느냐고 말한다. 이는 어머니가 최 노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한 말로, 이 말을 들은 최 노인도 '말없이' 화초밭을 내려다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진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자 최 노인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쉬는데, 이를 통해 최 노인 역시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희곡을 바탕으로 적절한 연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넋두리 외우듯'은 최 노인의 이후 대사를 혼잣말로 푸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지시문이다. 이후 대사에서 최 노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문제 상황을 열거하며 신세타령을 하는데,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대사 전체에서 상대 즉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나 그 원망을 들키지 않으려는 심리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의 바로 앞에서 최 노인은, 집에 물이 흘러들어 온 것이 이웃들의 고의가 아닐 것이라는 어머니에게 '그래 우리가 잘못이란 말이요?'라며 역정을 낸다. ㉡에서 어머니가 고소 즉 쓴웃음을 짓는 것은 이런 최 노인의 고집스럽고 억지스러운 태도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 ④ ㉣에서 '사이'는 어머니가 말을 끝맺지 않은 상태에서 머뭇거리며 시간을 끌라는 지시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꺼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최 노인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심리가 이 머뭇거림을 통해 드러난다. ⑤ ㉤의 바로 앞 대사에서 어머니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고 하자 ㉤에서 최 노인은 말없이 눈만 부릅뜨고 어머니를 노려본다. 중략 이후에 이어지는 최 노인의 반응('이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 주신 집이야!', '그래, 경수 취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집을 팔자는 거야?')을 고려할 때, 이는 아내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최 노인의 심리를 표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두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집'에 '구정물'이 흘러드는데도 '어머니'는 이웃들이 '설마 알고야 그랬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이에 대해 '최 노인'은 화를 낸다. 그렇지만 이는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어머니'가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해 '최 노인'이 화를 내는 것을 변화한 세태에 적응하지 못한 구세대에 대한 반발이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작중에서 '어머니'는 주위의 건물들이 높게 지어져 '구정물'이 흘러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등 세태의 변화상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최 노인'이 그렇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필재'의 기억 속 '집'은 종갓집인데, 이 '집'은 크고 번성했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없는 모습이다. <보기>에서 억압적인 유교적 인습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대목을 통해 가문을 우선시하는 종가의 유교적 인습이 구성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종친들은 '종가 없는 마을에 무슨 체면으로 살아가겠느냐'라며 필재에게 '집'을 고치고 내려와 살라고 말하지만, 필재는 이들을 '그 늙은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들의 말을 '모두가 귓등으로만 들리는 소리'라고도 하는 등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를 통해 가문의 위세를 중시하는 종친들, 즉 유교적 인습을 내면화한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⑤ '빈손으로 취직을 하자는 것이 틀린 채산'이라는 것은, 뇌물을 쓰지 않고는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로부터 뇌물 등의 편법이 횡행하던 전후의 세태를 짐작할 수 있다.

[27 ~ 30]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안도환, 「만언사」 (수능특강 274쪽)**
→ **이담명, 「사노친곡」**

27.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6장>의 중장에서 화자는 '시름'이 많아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다. '꿈'에라도 '노친 얼굴'을 보고 싶지만, '시름'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니 '꿈'에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종장의 '노친 얼굴이 눈에 삼삼하'다는 말은 노모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노모의 얼굴이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는 것)일 뿐, 노모의 얼굴을 '꿈'에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제2장>에서 화자는 '친년은 칠십 오'라는 말로 노모의 연세가 많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초조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로는 수천 리'라는 말로 고향까지 가는 길의 험난함과 긴 거리를 부각함으로써 막막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④ <제10장>의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죄' 지은 자신에게 더 큰 벌을 내리지 않고 유배를 보낸 '성은'을 강조하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노친'에게 그러한 '성은'을 헤아려서 너무 '그리워'하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는 유배된 자신을 위해 너무 애태우고 상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제11장>에서 화자는 '하늘'이 '낮은 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일월'이 '하토'까지 비추는 것처럼 임금이 '우리 모자지정'을 살펴 자신을 유배에서 풀어 줄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임금을 '하늘'과 '일월'에, 유배에 처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낮은 데'와 '하토'에 빗대고 있는 것이다.

28.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오장의 불')은 '가슴속'에 난 '불'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심적인 고통이 극심함을 의미한다. 또한 화자는 ㉯('천상수')가 있으면 그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구할 수 없다는 말로 그 고통을 해소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화자는 자신이 몹시 사나운 운수('대액')에 빠질 팔자여서 판단력이 흐려져('눈조차 어둡구나'), '마른 섶을 등에 지고 열화에' 들어가는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살 가망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임금이 '성은'을 베풀어서 목숨을 살려('일명을 꾸'어 주셔서) '해도'에 유배 보내는 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액')과 ㉣('열화')은 유배의 형벌이나 유배지에서 겪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화자가 유배를 떠나게 되는 상황은 이보다 뒤에 나오는 '일명을 꾸이셔서 해도에 보내시니'에서부터 제시된다. ③ ㉦('수운')은 근심스러운 구름이나 근심에 가득 차서 바라보는 구름, 근심이 낀 듯한 구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어로서,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화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산천') 또한 자신의 근심과 슬픔이 하도 커서 자연물들까지도 그 근심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음을 나타내기 위한 시어이다. ④ 화자는 ㉠('풍운')이 흩어져 있는 상황과 ㉥('된서리')이 차가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모이는 때와 '우로'가 내리는 때에 빗대어서 미래에 오기 바라는 긍정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겪고 있는 시련 또는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지만, 다시 모이기를 바라는 ㉠ 자체가 시련을 주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화자가 부모 친척과 이별하는 상황을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도 일성', '호부 일성', '애고 소리' 등의 시구에서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며, '눈물도 하직이라(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모습)', '강상에 배 떠나니', '일대 장강이 어느덧 가로졌다(강물 가운데 다다른 배 위의 화자와 그가 바라보는 강가의 부모 친척 사이에 긴 강이 가로놓인 모습)' 등에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고 볼 수 없으며, 슬픔의 정서가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작가는 자신의 행동이 등잔불을 치는 나비의 행동처럼 스스로의 목숨을 잃게 만들 짓임을 알았다면 '식록지신'으로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지만, '대액'을 당하니 '눈조차 어'두워서 어리석게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뉘우친들 무슴 하리'라는 말은 이미 죄를 저지른 뒤여서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 자신에게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행위를 떳떳하게 여기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② (가)의 작가는 '내 죄를 아옵거니'라는 말로 스스로의 죄를 잘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유배가 박벌'이라는 말로 유배를 보냈다고 해서 임금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의 작가는 임금이 자신을 '해도'에 유배 보낸 것이 '성은'이라는 말로 임금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살 가망 없다마는'이라는 말로 자신이 자기 죄를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소대성전」 (수능특강 301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생, 즉 소대성이 집을 나간 뒤 소저는 시비 난영에게 소대성이 나간 진위를 알아 오라고 명하여 난영이 베껴 온 소대성의 글을 읽고는 '글을 보니 목숨을 구하고저 도망함이라'라며 소대성이 떠난 이유를 짐작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소저는 지금 (아버지 이 승상이 세상을 떠나) 상중에 있으므로 당장 소대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후에 소식이 없으면' 저승으로까지 찾아가리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신이 규중 여인임을 들어 소대성을 찾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2. [출제의도] 특정 구절이 갖는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부친의 은혜 모르는 사람'이란 '소생', 곧 소대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은, 소대성이 은혜를 모르고 '무단히(= 아무 사유가 없이.)' 나갔다는 소문이 돌면 소저('막내')가 소대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대성을 향한 소저의 마음을 단념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② ㉡에서 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대성을 쫓아내기 위해 자객을 보냈지만 자객이 도리어 죽고 소대성은 살아서 도망을 갔으므로 소대성이 후환을 가져올까 하는 염려 때문일 것이다. ③ ㉢에서 소저는 소대성이 까닭 없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정생이 말한 대로 소대성이 '무단히 나갔다'고 소문이 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은, 소대성이 타당한 이유 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지려고 나갔으므로 그가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데, 이는 곧 소대성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이 승상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방랑하던 소대성을 거두어 막내딸과 혼약을 맺게 한 인물이다. 따라서 소대성은 이 승상에게 큰 은혜를 입은 셈인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하직도 아니 하고 무단히 나갔다'면 이는 은혜를 모르는 '의 없는 사람'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소저는 소대성이 이런 '의 없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괴이히' 여기던 중, 소대성이 남긴 글을 보고 그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간 것이라는 전후 사정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33. [출제의도] 지문 내 특정 대화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저가 소대성이 떠난 이유를 묻자, 부인이 '너는 규중처자'이기 때문에 '외객의 머물고 떠남'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한다. 이에 소저가 '전일 중헌에서 혼약'을 했으므로 정절을 지키려고 소대성의 거취를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부인이 그것은 정식 혼례가 아니므로 소대성은 남이라고 답한다. 곧 소대성과의 혼약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저는 이를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부인은 정식 혼례가 아니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소저나 부인 모두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부인의 경우 '더러운 말로 가문을 욕되게 말라.'거나 '내 뜻을 거스르니 금일로 모녀의 정을 끊으라'라고 말하는 등 직설적이고 강경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등장인물 중 소대성에 대해 소저가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인물은 소저 본인뿐이다. 소저가 그런 뜻을 비치자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므로 소저는 '모녀의 정이 변할까 염려'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저가 정절이라는 중세적 윤리관을 저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생 등이 뜻을 굽힐 것을 권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면서 정절을 지키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저의 모습에서 정절이라는 중세적 윤리관이 동요하는 현상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④ '충'은 대표적인 봉건적 이념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소저의 말은, 남자인 오라버니들이 충을 지켜야 하듯이 여성인 자신은 정절을 지키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말이다. 곧 소저는 정절이라는 중세적 윤리관을 충이라는 봉건적 이념과 관련지어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이생 등이 '권도'와 '세상 의논'을 내세우는 것은 정절이라는 중세적 윤리관을 굳게 지키려는 누이동생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이다. 이는 곧 중세적 윤리관을 고수하기보다 세속의 논리를 앞세우는 태도라 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72쪽**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발표에서 '안성 청룡사 대웅전을 ~ 완료되면 방문하셔서'라고 전통 안료를 활용하여 보수될 장소의 방문을 권유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서 사용된 발표 전략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전통 안료에 관한 문헌으로 『청장관전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문헌의 편찬 일자와 기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발표의 도입부에서 '얼마 전 ~ 기억하시나요?'라고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체험 학습 경험을 환기하며, '그때 여러 ~ 발표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통 안료를 발표 주제로 정한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③ '여러분은 ~ 분들이 많네요.'라고 돌과 흙의 색에 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석간주, 석청 등 색을 띤 돌들의 사진을 제시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수는 '물 수' 자, 비는 '떨어질 비' 자로'라고 수비법에 쓰인 일부 한자의 뜻을 풀이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자세한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청중의 반응을 파악하여, 석청의 수비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여 주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2'는 '항균성 금속을 함유한 돌이 있'다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충의 번식을 ~ 만든 것이겠어'라고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다. 그러나 '학생 3'은 발표에서 전통 안료를 입히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을 뿐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지 않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38. [출제의도] 토론에서 양측의 공통된 의견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입론에서 '벌금형이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차등 벌금제의 도입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 1'은 입론에서 '벌금형이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③이다.

39.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에서 언급된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이 입론에서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제는 경제적 사정 파악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므로 차등 벌금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차등 벌금제 도입을 무산시켰던 문제가 현재는 해결되었다는 뜻이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0. [출제의도] 토론의 반대 신문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반대 2'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제는 벌금 산정에 활용될 소득이나 자산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라고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현재의 소득 파악 시스템이 ~ 설문 조사 결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나요?'라고 하여 설문 조사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논리적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④ [B]에서 '찬성 1'은 '벌금형이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라고 상대측이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고 '~ 노역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나요?'라고 하여 언급된 제도들의 실효성에 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전에 수립한 계획이 초고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는 차등 벌금제를 도입했던 국가들 중 한 곳은 폐지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차등 벌금제를 도입했던 모든 국가들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등 벌금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다.

42. [출제의도] 초고의 끝부분을 적절하게 이어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는 2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간의 벌금형 처벌의 경중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한다는 점과 3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벌금형이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로 변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을 차등 벌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로 제시하고 '따라서 차등 벌금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2쪽**

43. [출제의도] 글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에너지 하베스팅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에너지 하베스팅의 종류는 둘째 문단에서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상용화된 정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다. ④ 에너지 하베스팅의 전망은 관련 조사 자료의 수치를 언급하며 제시하였다.

44. [출제의도] 교지 편집장의 요청에 따라 초고를 수정할 때 반영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정된 첫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기계의 폐열, 사람이나 차가 지면을 밟는 압력처럼'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자투리 에너지의 예시'이다. 또 초고 첫째 문단 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역시 ~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문장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삭제된 문장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대한 것이다.

45. [출제의도]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에너지 하베스팅의 수집 전력의 크기가 밀리와트급으로 매우 작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대용량 발전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크기가 메가와트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나)의 자료에 의하면 열에너지 하베스팅의 경우 에너지 발생원이 기계일 때 인체일 때보다 수집 전력의 크기가 작고 최댓값이 10밀리와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발생원이 기계일 경우에는 수집 전력의 크기가 크다고 3문단을 보강할 수는 없다. 진동 에너지 하베스팅의 경우 에너지 발생원이 기계일 때 인체일 때보다 수집 전력의 크기가 크긴 하지만 여전히 밀리와트급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용량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문장에 쓰인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에서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가 사용되었다. 조사 '께'는 문법적 높임에, 특수 어휘 '드리다'는 어휘적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보조사 '요'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문법적 높임 표현이다. ② '-ㅂ니다'는 청자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③ '가셨어요'의 '-시-'는 행위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④ '하셨다'의 '-시-'는 문장의 주어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ᄆᆞᅀᆞᄆᆞᆯ 보시고 文殊師利ᄭᅴ 묻ᄌᆞᄫᆞ샤ᄃᆡ(마음을 보시고 문수사리께 물으시되)'의 '-ᄌᆞᆸ-'은 '文殊師利(문수사리)'를 높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문장의 객체를 높이기 위해 '-ᄉᆞᆸ-, -ᄌᆞᆸ-, -ᄉᆞᆸ-, -ᄉᆞᆯᄫᆞ-, -ᄌᆞᆯᄫᆞ-, -ᄉᆞᆯᄫᆞ-'이 쓰였다.

[오답풀이] ①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에서 생략된 주어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② '-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龍王(용왕)'이 아닌 청자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④ '-ᄉᆞᆸ-'은 '하ᄂᆞᆯ(하늘)'을 높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다.

37.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접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꽃답다, 멋지다, 새롭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각각 어근 '꽃, 멋, 새'에 접사 '-답다, -지다, -롭다'가 결합한 단어들이다.

[오답풀이] ① 용언의 어간 '달리-, 싸우-, 집-'에 접사 '-기, -ㅁ, -게'가 결합한 단어들이다. ④ 능동사 '놓다, 떨다, 뽑다'가 피동을 만드는 접사 '-이-, -리-, -히-'와 결합하여 피동사가 되었다.

38. [출제의도] 제시된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 따르면 '예, 례' 이외의 'ㅖ'만 [ㅖ]로 발음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외를 따져'는 [예외를 따저]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에 따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이에 따라 '희망을 띄워'는 [히망을 띠워]로 발음해야 한다. ② ㉤에 따르면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성의의 표시'는 [성의의 표시], [성이의 표시], [성의에 표시], [성이에 표시]로 모두 발음 가능하다.

39. [출제의도] 안긴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나는 옷을 옷장에 넣었다.'라는 문장에 '동생이 옷을 벗다.'라는 문장이 안기면서 공통된 성분 '옷을'이 생략되었다. 즉,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면서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부사절로 안긴 문장 '이가 시리게'에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③ 문장 '아들이 군에 가다'가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 '아들이'가 생략되었다. ⑤ 명사절로 안긴 문장 '엄마가 집에 오다'에는 서술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40 ~ 43] 매체 – 언어 통합

40.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카드 2'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17 %가 소음성 난청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사 자료의 경우 언제 조사된 것인지 조사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조사 자료가 최근의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반영된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카드 1'에는 (가)의 조사 결과에 담긴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미지와 문구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계획(①)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머지 카드들의 내용을 압축하여 '청소년 소음성 난청의 실태와 원인, 예방법은?'이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있고, 그 아래에 소음성 난청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② '카드 1'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무엇인가요?'라고 묻고, '오랜 시간 큰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라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소음성 난청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카드 2'에서는 청소년의 소음성 난청 실태가 원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④ '카드 3'에서는 청소년 소음성 난청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이 이어폰의 과도한 사용임을 알려 주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로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⑤ '카드 4'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예방법을 전달할 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말하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쓰인 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결 어미 '-고'는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카드 뉴스의 보완 방향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 카드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에는 소음성 난청의 실태와 원인, 예방법은 제시되어 있지만,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카드 A'를 활용하여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44 ~ 45] 매체

44.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포스터 제작자가 (나)의 댓글로 제시된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 (가)의 포스터 제작자인 '주희'는 (나)의 댓글로 제시된 '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누리집의 게시 글에 제시된 하이퍼링크를 수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④ (나)에서 '희수'가 '아직 포스터를 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 주소를 공유해 줬어요'라고 댓글을 남긴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우주'가 '올려 주신 링크로 들어가서 ~ 참 보기 좋아요~!'라고 댓글을 남긴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수진'은 '포스터의 제작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나눔' 활동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밝혀 주자.'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홍보 포스터에 ''사랑나눔' 봉사 활동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구에서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